

##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8.17~19)

### □ [주요 언론 동향]

-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은 한일 양국의 역대 WTO 분쟁 사안은 총 6건이며 그중 3건은 한국이 승소, 남은 3건은 아직 심사 중임을 인용 보도<sup>1)</sup>
- o 과거 한일 간 DRAM 무역, 한국의 김 수입 쿼터, 한국의 일본 오염지역 해산물 수입 금지 등 3건의 WTO 분쟁은 최종 판정에서 모두 한국이 승소하였음을 인용 보도
- o 또한 각각 2016년 6월, 2018년 6월, 2018년 11월에 한국의 대일본 공기압력 밸브 관세 부과, 일본의 스테인리스 강판 반덤핑세 부과, 한국 정부의 국내 조선업 공적 자금 지원 건 등 WTO에 제출한 소송은 현재 심사 중임을 보도
- 중신망(中新网)은 한일 양국의 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광복절 전후로 진행하려고 했던 독도 방어훈련을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인용 보도<sup>2)</sup>
- o 18일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 방어훈련이 계획은 되었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
- \*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 방어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훈련 기간을 광복절 전후로 확정하였으나 광복절이 지난 현재 군사훈련은 여전히 계획 중에 있음.
- o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대화와 협력을 원하면 화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국방부에서는 독도 방어훈련은 매년 진행되는 훈련으로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힘.

1) 「韩日通过WTO提起6起诉讼 3起韩国胜诉3起正在审理」, 『中国经济网』(2019. 8. 18)

2) 「韩国推迟在日韩争议岛屿演习 将决定是否延长军事协定」, 『中新网』(2019. 8. 19)

-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독도 훈련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인용 보도
  - \* 한일 양국 중 누구라도 협정 폐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현재 청와대는 협정 폐지의 가능성을 제외하지 않았음을 인용 보도
- 중신망(中新网)은 국제 환경기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할 계획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주한국 일본대사관 경제공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인용 보도<sup>3)</sup>
-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의 오염수 처리 결과와 한일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서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국가에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강조(한국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 권세중 국장)
- 현재 오염수 배출 계획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확정될 경우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용 보도
-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한일 분쟁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중국 전문가<sup>4)</sup>의 의견을 보도<sup>5)</sup>
- 马晓霖 교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분쟁을 완화하고 양국 간 긴장 관계에서 다시 협력 관계로 돌아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
  - \*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 키우고 일본과의 분쟁을 끝낼 것임을 강조함. 또한 일본의 침략 역사는 언급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비판하지 않음.
  - \* 경축사의 중문 번역본을 보면 약 4,500여개 글자 중 역사 및 한일 관계와 관련된 글자 수는 500자에 불과

3) 「韩政府传唤日本公使 要求日方说明福岛核污水处理计划」, 『中新网』(2019. 8. 19)

4) 저장외국어학원(浙江外国语学院) 马晓霖 교수

5) 「学者：文在寅喊话预示韩日摩擦接近拐点」, 『北京青年报』(2019. 8. 17)

-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같은 날 아베정부를 반대하는 촛불집회(10만 명)가 열렸다는 것을 전하며 국민 정서는 정부의 입장과 여전히 온도차가 크다고 보도